

##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강북구청장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로"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자료사진)

이호진 기자 | 승인 2018.03.30 08:12

(서울 더리더)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난 2월 서울시 자치구로서는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로 인증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WHO 고령친화도시란 인구고령화와 도시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로 현재 37개 국가의 541개 도시가 인증돼 있다.

고령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WHO가 제시한 외부환경, 교통, 주거, 사회참여, 존중과 포용, 고용, 소통, 지역사회지지 및 건강서비스 등 8가지 영역에서 엄격한 국제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구는 올해 1월에 신청해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인증도시가 됐으며 인구 32만명의 작은 지역으로서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인증도시가 됐다.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14% 이상을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로 규정한 UN의 기준에 따르면, 2018년 현재 강북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5,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해 이미 고령도시로 진입했으며 오는 2021년에는 20%를 넘어서는 초고령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노인 비율도 8.6%에 달해 고령친화적 환경조성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이에 구는 노인정책의 비전을 '건강백세, 희망강북'으로 설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정 ▲독거노인 현황조사 실시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가입 ▲'건강수명 백세

도시' 사업추진단 구성 ▲강북구 '건강수명 백세도시' 3개년 종합계획 수립 등의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박겸수 구청장은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은 강북구의 노력들이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나이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진 기자 lhj1011@theleader.kr